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동향

2008년도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 사업 실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KISA)이 대학 정보보호 인력의 올바른 정보보호 마인드를 배양하고, 우수한 미래 정보보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제3차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부터 실시된 대학 정보보호 동아리 지원사업은 매년 40~50개 정보보호 동아리를 선정해 교육 및 세미나를 실시하는 한편, 해킹방어대회, 소프트웨어 보안 취약점 찾기 대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동아리에게는 해외 컨퍼런스 참가를 지원해 우수 인력과 정보교류 및 우수기술을 경험하게 하는 등 정보보호 동아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돼 왔다.

특히, 올해에는 동아리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하는 한편, 동아리별로 특화된 기술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아리간 기술교류를 위해서도 교환 세미나 개최를 지원하는 한편, 웹사이트를 이용한 커뮤니티 개설 및 자료 공유 등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KISA 관계자는 덧붙였다.

동아리 지원 사업의 대상은 2년제 또는 4년제 대학에 소속된 정보보호 관련 동아리로, 구성원이 최소 10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지도교수와 연구활동을 위한 독립된 동아리방을 확보한 동아리에 한정된다.



▲2007년 대학 정보보호 우수동아리 시상식

2008년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대상 사업자 선정

포털, 인터넷언론, UCC 전문 사이트 등 총 37곳

정통부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시행하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2008년 대상 사업자 37곳을 선정해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한편, 개별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게시판에 댓글 등의 정보를 게재하기 전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이용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매년 새롭게 웹사이트 접속자 수를 조사해 대상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대상 기업 역시 인터넷 전문조사기관 3곳을 통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동안 일일평균 이용자 수를 조사한 후 확정된 것이다.

올해 선정된 대상 사업자는 네이버, 다음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300,000명 이상인 포털 16곳을 비롯해 조인스닷컴, 조선일보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200,000명 이상의 인터넷 언론 15곳, 그리고 판도라 TV, 티스토리 등 일일평균 이용자수 300,000명 이상의 UCC 전문 사이트 등 6곳으로, 지난해에 비해 6곳이 늘어났다.

이들 사업자 중 2007년부터 본인확인제를 시행해왔던 사업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될 예정이며, 올해 새롭게 선정된 6곳은 시스템 마련 등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4월 1일부터 본인확인제를 적용해 게시판을 운영하게 된다.

정통부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1월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 대상 사업자와 함께 공익광고 등 연중 홍보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편, 2007년 9월에 이어 오는 2008년 5월에는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KISA, 고객감동 실천 위해 팔 걷고 나선다

23일, 개인정보, 스팸 민원 고객만족 선포식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소 8주년 및 불법스팸대응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KISA가 지난달 23일 가락동 KISA 대회의실에서 '개인정보·스팸 민원 고객만족 선포식'을 개최하고, 고객 만족 슬로건 선포 및 고객만족 향상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선포식은 연간 2,200,000여건의 스팸민원과 25,000여건에 이르는 개인정보 침해신고·상담을 현재 수준의 친절성·전문성·신속성으로는 고객감동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아래, 민원품질 혁신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2007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와 스팸머 제재 등에 대한 고객의 기대가 높아져, 그에 부응하기 위한 고객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런 배경에서 이날 선포식 참석자들은 '보다 친절하게(Smile)', '보다 정확하게(Specialty)', '보다 신속하게(Speed)'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만족 서비스 전략 발표 및 선언문 채택을 통해 고객의 아픔을 내일처럼 처리하겠다는 의지와 각오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포식에서 KISA 황중연 원장은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의 KISA가 가진 진정한 경쟁력은 고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에 있으므로, 고객 만족과 감동을 위해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 위반 대형할인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및 지속적인 지도점검 따를 듯

정통부가 2007년 12월 중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통해 정보통신방법을 위반한 대형할인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시정명령, 또는 수사의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은 지난 2007년 12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9개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경품행사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 취급 위탁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준수 여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현장 실태 점검으로, 그 결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 9개 대형할인점에는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시정명령 및 수사의뢰가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법령 준수 미흡을 비롯해, 개인정보 수집 시,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별도 고지가 아닌 일괄 동의, 개인정보 제3자에게 제공에 대한 동의 절차 미준수 등이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등 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업체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된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실태조사 결과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취급하는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2월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